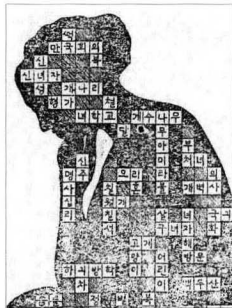


생명을 걸어도 좋을만큼 가치 있었던 1920년대의 모험, 연애

태초 이래로 연애는 있었다. 그랬으니 인류가 이처럼 지구 위에 차고 넘치도록 생육하고 번성한 것이다. 연애는 인간 남녀에게 본능의 한 부분으로 세습되어 왔지만 그것이 문화의 신발명품으로 발견되고 주목을 받은 것은 근대에 들어서면서이다. 소장 국문학자인 권보드래가 쓴 《연애의 시대》는 '연애'라는 코드를 통해 막 근대의 세례를 받고 난 뒤인 1920년대 초반 한국의 문화와 유행 현상을 분석한다. 연애라는 말은 일본 메이지 시대의 번역어로 나타난 신조어新造語이지만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쓰인 것은 1912년 매일신보에 연재된 조중환의 변안소설 《쌍옥루》다. 그러나 연애라는 말이 대중에게 입말로 널리 쓰이기 시작한 것은 그 뒤로도 세월이 더 지난 1920년대 중반의 일이다. 서구 근대의 문물과 이데올로기들이 개량·개조의 거센 바람을 타고 황사처럼 밀려올 때 자유연애며 자유결혼이라는 개념과 용어도 함께 묻어 들어왔을 것이다.

몇몇 선구적 변안소설에서 연애라는 말을 쓰긴 했지만 이 낯선 용어가 곧바로 남녀간에 주고받는 열정熱情을 가리키는 말로 자리잡은 것은 아니었다. 한국의 근대인들은 연애라는 말을 처음 접했을 때 에이즈나 사스와 같은 나쁜 선입견을 갖고 서양의 외설적 풍속의 일종쯤으로 받아들였다. 실제로 박달성 같은 이는 '연병戀病'이라는 용어를 썼다. 연애라는 말의 고갱이인 '사랑하다'는 말조차 남녀 관계보다는 주로 '사랑 중에 기중其中 높고 제일 변하지 않고 제일 의리상에 옳은 사랑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국가론의 자장 안'에서나 발음됐다. 봉건 왕조국가의 이데올로기가 확고했던 시대였음을 떠올린다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다. 사랑은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로는 신의 고결한 사랑이라는 뜻으로 주로 유통되었다. 1919년 3·1운동을 거치고 난 뒤 교육열과 문화열이 확산되고 서구에서 이입된 여러 사조思潮와 의식들이 진보와 선쁨으로 이해되면서 연애는 비로소 남녀 관계를 가리키는 제 뜻을 되찾고 유통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장석주 | 시인



1920년대 연애의 구체적 양상은 구인회 일원이었던 소설가 이종명이 <삼천리>에 기고한 '나의 첫사랑기'에 잘 나타난다. "활동사진과 '하모니카'와 '풋볼'을 좋아하며 교모校帽를 일부러 찢어서 쓰고 다닐 줄 알고 창가 시간을 제일 중요한 과정으로 아는 불량"중학생이 몇 촛 뺄 되는 누이 집을 저너머다 찾아가서 그곳에 놀러오는 어떤 여학생에게 서투른 편지질을 하다가 누이에게 톡톡히 꾸지람을 모시고 결국 금족禁足까지 당한 그것도 일종 사랑의 표현으로 볼 수 있을까?(...) 또한 머리를 길게 기르고 각모角帽 쓴 전문대 학생이 '하이네'와 '바이런'의 시를 번역하여 읽혀준 것을 인연으로 그 여자와 친밀해져서 서로 몸까지 허락하고 부모들 몰래 소꿉질 같은 살림을 하다가 결국은 발각이 되어 강제로 헤어진 뒤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다고 '칼모친' 병을 들고 다니던 그런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 그렇지 않으면 어느 매춘부와 사이가 대단히 뜨거워서 집안 어른들에게서 외출금지 명령을 당하자 그 여자는 단지斷指를 하여 반성과 시위를 하였으나 결국 흐지부지 헤어지고 말게 된 그런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활동사진·하모니카·풋볼·하이네·바이런은 당대를 휩쓴 양풍洋風의 기호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기호들 위로 떠오른 연애는 그 양풍의 한 핵심이었다.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미 연애라는 현상은 개개의 삶의 전부면에 잘게 쪼개져 스며들어갔다 그 실체를 사회 전면에 새로운 풍속이라는 스펙트럼으로 드러내며, 사회의 내면에서 개조·개량의 추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었음을 입증한다.

1920년대의 새로운 문화와 유행을 선도하고 확산시킨 집단은 단연 여학생과 기생이다. 당연하게도 연애라는 문화를 선점하고 확산시킨 것도 그들이다. 여학생이 땡기머리를 자르고 얼굴을 가리던 장옷도 벗어 던지고 '앞을 부풀리거나 어수스럽게 가르마 탄 서양식 트레머리, 짧은 통치마, 양말에 구두, 그리고 양산에 책보나 핸드백'이라는 서양에서 건



너운 근대식 복식服飾으로 거리에 나왔다. 여학생의 전형적인 복장이 대중들의 눈에 익기 시작할 무렵 기생들이 '고운 비단, 화사한 빛 삼회장저고리, 남의 머리채를 사다 엮어 올린 어여머리' 등의 전통적 치장을 버리고 '트레머리에 구두를 신고 수수한 빛깔 저고리에 짧은 치마'를 입고 거리에 나타난 것이다. 여학생과 기생을 구별하는 차이가 외관에서 지워지자 사회 일각에서 '추업醜業하는 여자들이 학생처럼 꾸미고 다닌 탓에 여학생을 보고도 유녀遊女'로 오인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폐단이 있다고 비판이 일자 1923년 1월 서울 네 권번의 대표자들이 모여 기생의 학생 차림을 금지하는 결의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생들만 여학생을 본뜬 것은 아니었다. 거꾸로 여학생들의 차림이 사치해지면서 기생을 모방했던 것이다. 이 사실을 두고 권보드래는 이렇게 쓴다. "기생과 여학생이 모두 새로운 존재 양식을 개발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같은 교차는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 새로 등장한 존재였으니 만큼 말투와 의복, 행동거지를 온통 창안해 내야 했던 여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면서 기생들 또한 심각한 존재변이를 겪고 있었다." 기생과 여학생은 전제적인 남권주의男權主義, 혹은 부권주의父權主義에서 풀려나 어느 정도 자유를 획득해 사회적 운신의 폭을 넓혀가는 대표적 집단이다. 따라서 다른 집단보다 새로운 존재 양식을 생성해 나가는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신문물과 유행의 전시장이자 동시대적 발흥의 자리인 도심의 '거리'를 두고 기생과 여학생은 주도권 경쟁 관계에 놓인 불가피한 바도 있었다.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며 존재 변이를 겪고 있던 기생과 여학생 집단은 상당한 신분 격차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준거가 없는 시대에 서로를 준거로 상호 복제하며 근대의 여주인공 자리를 두고 은밀하면서도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것이다.

연애는 근대교육을 받은 신여성과 신남성들의 전유물이었지만 머지않아 사회 전 계층의 이상으

이 글을 쓴 장석주는

고려원 편집장을 거쳐 청하출판사 편집인, 발행인을 역임했고, 이후 계속해서 책만 드는 일을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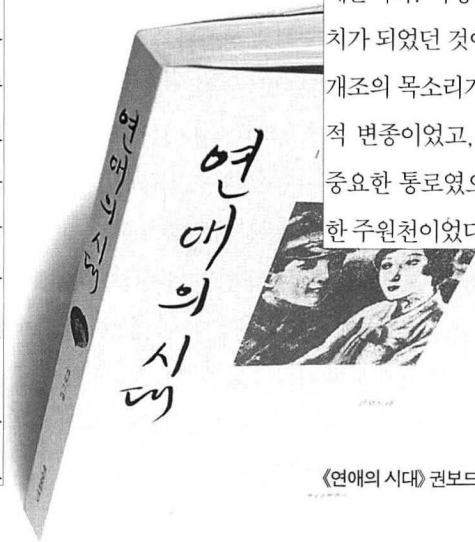
청하출판사 시절에 계간 <현대시세계>와 <현대예술비평>을 펴내며 기획과 편집을 맡았고 월간 <현대시>, 계간 <시인세계> 등에서 편집위원으로 일하며 신문과 잡지 등에 다양한 글을 기고했다.

현재 경희사이버대학교와 명지전문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다.

《햇빛사냥》《완전주의자의 꿈》《그리운 나라》《새들은 황혼 속에 집을 짓는다》를 비롯해 많은 시집을 냈으며 독서일기 형식의 <감찰로 된 책들>을 출간하기도 했다.

로 퍼져나갔다. 구여성들이 불합스습한 가정제도와 시집살이에 묶여 '남녀 사이의 내밀하면서도 전면적인 이해, 그 관계의 확장으로서의 가족이라는 꿈'이 좌절되고 멀어져 가면 갈수록 '오직 연애에 의해 결합된 성적 생활'에 기반한 자유연애와 자유결혼은 당대의 이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광수의 소설 <무정>에 나오는 한 대목, "정치도 좋고 깨끗한 집에 피아노 놓고 바이올린 걸고 선행과 같이 살 것이다. 늘 사랑하면서 늘 즐겁게..." 속에 구현된 '스위트홈'이라는 현실태로, 혹은 '서양식 트레머리·피아노·풍금·동동부인 여행'이라는 기표가 머금고 있는 신 가정 실현이라는 이상의 가시적 실물로 드러난다. 구여성들의 팔과 다리를 묶고 꿈을 사산시키는 일족一族 중심의 대가족 제도는 '연애'로 표상되는 근대의 자유 개인주의와 충돌하며 개조되어야만 하는 구태舊態이며 장애물에 지나지 않았다.

1920년대의 연애는 '스위트홈', '행복'이라는 이미지를 거느린 근대적 삶의 양식의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을 쟁취하는 것은 생명을 걸어도 좋을 만큼 가치 있는 모험이었던 것이다. 기생의 신분으로 부호의 아들과 사랑에 빠졌다가 반대에 부딪치자 자살한 강명화, 윤심덕·김우진의 동반 정사情死에 커다란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화제가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죽음으로 사랑을 성화聖化함으로써 근대적 이상의 삶을 완성한 이들에 대한 선망 때문이다. 사랑은 죽음을 초극할 정도로 지고의 가치가 되었던 것이다. 권보드래는 이렇게 쓴다. "세계개조의 목소리가 높던 시절 '연애'는 개조론의 대중적 변종이었고, 새로운 가치 '행복'에 이르기 위한 중요한 통로였으며, 문화·예술·문학의 유행을 자극한 주원천이었다."



《연애의 시대》 권보드래 지음 | 현실문화연구 | 288쪽 | 값 13,000원